

개정 저작권법 '충격' 출판계 초비상

외국인 저작권 소급보호... 학술출판에 타격 커

출판계의 또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11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공청회 때의 개정안에는 있었던 '번역권 10년 소멸제도'와 '2차 저작물 작성권의 4년 유보'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된 개정 저작권법을 놓고 출판인들의 반발과 걱정이 적지 않다. 출판협회 산하 저작권대책위원회는 개정저작권법의 국회 통과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 개정된 저작권법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27일 출협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많은 출판인들이 참여,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출판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개정 저작권법이 현행 저작권법과 어떻게 다른지 주요 사항들을 문답을 통해 풀이해본다. (편집자)

—현행법과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현행 저작권법은 우리나라가 지난 87년 가입한 세계저작권 협약(UCC)에 의거, 87년 10월 1일 이후 발표된 저작물만 보호하면 되었다. 그러나 WTO 트립스 협정(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현행법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57년 이후 사망한 모든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후 50년간 소급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96년 7월 1일부터는 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책 속의 사진이나 그림 등의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96년 7월 1일 이전에 출판한 출판물은 어떻게 되나.

개정법에서 신설된 부칙 제 4조(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96년 6월 30일까지의 출판활동 행위로 인한 사전사후 책임은 없다(회복저작물: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새롭게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다만 트립스 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것이 95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한 소급보호 경과조치에 따라 보호내용에 차이가 있다.

—부칙 제4조에 명시된 소급보호 경과조치는 어떤 것인가.

경과조치의 핵심은 트립스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인 95년 1월 1일을 기준시기로 하여 그 이전에 제작,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령, 95년 1월 1일 이전에 낸 2차 저작물의 경우는 99년 12월 31일까지는 허락이나 보상없이 출판, 공연, 상영, 방송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리프린트물의 경우는 96년 12월 31일까지 허락이나 보상없이 배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이미 제작된 리프린트물의 판매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물론 95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작성된 저



지난 11월 27일 출협 강당에서 열린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모습.

작물은 96년 6월 30일까지만 허락이나 보상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이후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95년 1월 1일 이전 번역물의 경우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는 2000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보상청구가 있을 경우는 보상해야 한다. 선발행 후보상의 원칙이다. 보상의 기준은 문제부나 저작권심위조정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면 될 것이다. 보상청구 재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저작권 불이행시의 처벌 원칙은 친고죄를 채택, 피해자가 국내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95년 1월 1일 이후 사르트르

(1905-1980)같은 회복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새롭게 번역하고자 할 때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계약은 얼마든지 무방하나 독점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95년 1월 1일 이전의 출판행위가 UCC조약에 근거한 합법 출판행위였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부분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뜻이다.

—저작권 보호대상국가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나.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WTO 트립스 협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베른협약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WTO가입국이면 무조건 보호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수교가 없는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남정 기자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영역별 연령별

아너더 링링링

유아교육동화 링링링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일곱달동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 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낱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저작권세미나 개최

‘사적 복제 저작권 세미나’ 열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는 지난 12월 1일 오후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에 관한 저작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상조 서울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임원선 문체부 사무관, 윤청광 출협 부회장 등이 나와 저작물의 복제수단이 발전함으로써 야기되는 저작물의 보호 관리상의 어려움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출판사 편집장 절반이 여성”

국내 출판사 편집장의 43%가 여성이며,

특히 20대 편집장 중에는 7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KBS 제 1라디오의 출판정보 프로그램 <책마를 산책> (PD 이수익) 제작팀이 무작위 추출한 국내 100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 결과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여성 편집장의 70%가 미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월수입은 100만원~150만원 수준이 가장 많고, 이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아 전체의 84%가 출판업을 자신의 평생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암사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

현암사 창립50주년 기념 리셉션 성황

1945년 창업한 도서출판 현암사(대표 조근태)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6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이날 리셉션에는 창업주인 조상원 회장을 비롯, 박영식 교육부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김도현 문체부차관, 김낙준 출판문

화협회장, 정진숙 한국출판공고 이사장, 국회의원 이부영, 박석무씨 등과 일본작가 오다 마코토 등 출판문화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현암사의 발전을 축하했다.

건국공론사를 모태로 대구에서 출발한 현암사는 《법전》을 비롯, 《장길산》 《빙벽》 《우리가 알아야 할...》 시리즈 등으로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자리잡았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각계 의견

“학술출판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 촉구” 저작권대책위원회 윤청광 위원장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은 공청회안에 있었던 번역권 10년 소멸제도나 2차 저작물 작성권 4년 유예조항 등 낙후한 우리 출판계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저작권대책위는 저작권법 개정예 관심을 가지고 통상산업부나 재경원, 경제기획원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방문, 미 무역대표부와 저작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저작권법에 경과조치를 두어 소급보호의 유예기간을 얻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저작권법은 단순히 출판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정보의 질과 양적인 수준을 좌우하는 만큼, 국익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사안이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문화공동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출판의 진흥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등 정부측의 출판지원책 수립을 시급히 촉구한다.

“저작권 보호강화는 세계적 추세”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 이재철 사무관

트립스 협정은 우루과이 협상 안에서 탄

생한 것이므로 단순히 출판이나 지적재산권만의 문제로 좁혀 볼 수는 없다. 무역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미 다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저작권과 관련하여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었다. 저작권 보호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출판계도 이를 인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출판기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문체부도 같은 입장이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구체적·조직적 대응 못해 아쉬움” 저작권심의회조정위원회 최경수 박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협상 과정에 출판계나 저작권계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저작권 협상의 경우 권리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확보하지는 것이었는데, 권리확보를 위해 출판계나 정부측이나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령, 번역권 10년 소멸제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도 없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말지 않았는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출판계가 부담을 약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학술출판기금 마련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다. ❖

세계상의 시대

M. 하이데거 지음/최상욱 옮김/144면/4,500원

근대 이후 최고점에 이른 존재로부터의 소외 상태에서 인간의 위치를 되돌아볼 것을 절실히 요청하는 하이데거의 원전. 독일어-한국어 대역판으로 번역이 전달할 수 없는 하이데거 특유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율곡 철학의 이해

황준연 지음/304면/8,500원

한국 사상사의 시각에서 율곡의 행적과 사상, 그 업적을 재조명한 책. 율곡 성리학의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우주론(태극·이기론), 인생관(사단 칠정·심성론), 인식론(격물치지론) 등을 고찰하고, 아울러 율곡의 경제 사상까지 다루고 있다.

有와 本質에 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정의채 옮김/96면/6,000원/양장

존재론과 형이상학 분야의 필독서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풍부한 사상과 거대한 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고전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라틴어-한국어 대역판으로 이 책이 갖는 고전적·학문적 가치를 최대한 살렸다.

자연의 역사

C.F. 바이쎬커 지음/강성위 옮김/224면/6,500원

자연의 역사성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구의 생성에서부터 인간 정신의 발달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역사를 자연 과학, 역사 과학, 정신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에게 종합적인 통찰력과 세계상을 제공해 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